



2020학년도 1학기

덕성인이 추천하는 좋은강의 에세이 수상작품집



덕성여자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인 사 말

덕성여자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매년 「덕성인이 추천 하는 좋은 강의 에세이」와 「학습경험나눔 에세이」 공모전을 개최하여 학생들 본인에게 의미 있었던 강의에 대한 경험과 학습전략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덕성인이 추천하는 좋은강의 에세이」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좋은 강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학습자의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수님들의 어떠한 지원과 노력이 학습자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며, 학습에 효과적인지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학습경험나눔 에세이」에서는 오늘날 대학생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저자의 경험이 때로는 치열하게, 때로는 진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학습 경험은 또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며, 훌륭한 학습전략을 전수해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번 두 공모전에는 총 33편의 작품이 응모하여 12편의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작품들을 통해 독자들은 '성장'에 대한 열망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모든 작품이 선정되지는 못했으나, 원고 하나하나가 모두 귀중한 경험과 나눔이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학습과 성장의 경험을 나눠준 모든 지원자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덕성여대에서의 크고 작은 경험들이 학생들의 밝은 미래에 밑거름이 되는 소중한 자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0. 8. 2.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목 차

인사말

대상

생각, 생각, 생각. 박세은(글로벌융합대학)	
교수 : 한우진(철학전공)	7

최우수

두 마리 토끼를 잡다 박지나(심리학과)	
교수 : 정진웅(문화인류학전공)	16

우수

노동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 김다은(글로벌융합대학)	
교수 : 김영호(법학전공)	27

우수

가르침과 배움과 변화 노미리(영어영문학과)	
교수 : 김은정(사회학전공)	34

입선

이 강의 못 들은 사람 없게 해주세요. 김기연(정보통계학과)	
교수 : 함세정(문화인류학전공)	41

입선

범죄 및 비행 심리학 수강 후기 및 강의 추천 손지은(심리학과)	
교수 : 오영희(심리학전공)	48

대상

생각, 생각, 생각.

박세은(글로벌융합대학)

배 추천강의명 : 이해와 소통 세미나

배 담당교수 : 한우진

나는 재수를 통해 덕성여자대학교에 입학했다. 고3 때에도, 재수생일 때에도 소위 말하는 ‘SKY’를 바라보며 입시를 준비해 온 내게, 덕성여자대학교 합격 통지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대학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실망과 허탈함이 컸다. 하지만, 덕성여대의 신입생으로 한 학기를 보낸 현재, 나는 누구보다도 덕성여대의 학생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앞으로 펼쳐질 덕성여대의 미래가 기대된다고 말하고 싶다. 지금처럼 우리 학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무엇보다 앞으로의 대학 생활에 있어서 기대와 희망을 갖도록 해 준 1등 공신은 동기나 선배님들이 아닌 한우진 교수님의 ‘이해와 소통 세미나’ 강의이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의 일상이 뒤바뀌었다. 길거리에서 재채기 한 번으로 타인의 눈총을 받게 되었고, 바깥보다 집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으며, 집안에서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다양한 환경이 변화했다. 사람들 간의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 된 것이다. 자택 근무가 늘어난 직장인들을 비롯해 초·중·고등학생은 물론, 대학생들의 생활도 전례 없는 형태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덕성여자대학교를 포함한 많은 대학의 20학번 OT, MT 그리고 새·터가 취소되었고, 내가 참여하는 모든 강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신입생들은 동기나 선배님들, 교수님들과 직접 만날 기회가 없어졌다. 얼굴도 모르고 학문을 배우고, 함께 공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

황에서 유일하게 실시간 화상 강의로 진행된 강의가 있었는데, 그 강의가 바로 ‘이해와 소통 세미나’이다.

‘이해와 소통 세미나’는 한 주 동안 정해진 도서를 읽고, 교수님께서 제시하시는 발문을 주제로 학생들끼리 토론하는 형식의 수업과 글쓰기에 대한 이론을 배운 뒤 직접 두 번의 글을 쓰는 수업이 함께 이루어지는 강의이다. 처음 강의계획서를 보았을 때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화상채팅으로 토론이라니.....’, ‘일주일에 독서 한 권이 가능할까?’, ‘이런 작품들을 읽고 이해할 수는 있을까?’ 등 걱정은 걱정의 꼬리를 물어 산더미로 쌓여버리고 말았다. 평소 독서와 답을 쌓았던 내게 ‘독서토론’은 지옥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직접 만나보지도 못한 다른 학생들과 철학적인 토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부족한 실력을 공개하는 것 같아 부끄럽고, 벅차게만 느껴졌다.

학생들은 ‘오이디푸스 왕’을 첫 번째 도서로 시작해 ‘맥베스’, ‘터블린 사람들’, ‘국가2’, ‘토니오 크뢰거’, ‘공리주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기적 유전자’, ‘네 인생의 이야기’ 그리고 ‘예술이 궁금하다’를 읽고 토론을 했다.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외계인과 대화하는 방법을 생각해보기도 하고, 정해진 운명을 바꾸는 데 성공 혹은 실패하기도 했다. 토론 하루 전날부터 고심 끝에 내린 의견이 다른 학생의 간단한 반론으로 무너져서 토론이 끝난 후까지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해보지 못했을까?’ 하며 후회하기도 했다. 그리고 다음 토론에서 모두가 납득 할 수 있는 근거를 생각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했다. 이해와 소통 세미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했던 것이다. 생각을 거듭할수록 머리가 아프기도 했지만, 다음 토론을 위해 준비하면서 매번 느낀 것은 생각하는 것도 할수록 실력이 성장한다는 사실이다. ‘생각’ 뿐만이 아니었다. 독서를 하는 속도도 단축이 되고, 발제문에 대해 고민해보는 사고의 폭도 매우 넓어졌음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 일방적인 강의를 듣고, 일방적으로 독서 한 뒤 감상문을 작성했다면 포기하거나 열정적으로 임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소·세에서는 실시간으로 생각을 교환하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참신한 의

견 또는 나와 다른 의견들이 다음 토론을 준비할 때 동기부여 역할을 해주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토론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다. 나는 공동체주의, 민족주의 관련 토론에 긍정적인 입장이었고, 이에 대한 근거로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의 마지막 장면을 인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장면에서는 ‘원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한 다리 건너 누나, 동생이고...’라는 대사가 있는데, 이러한 대사를 구성하고, 한 생명을 살리는 장면에 대중이 더욱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국과 다른 대한민국의 민족의식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학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민족주의, 공동체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볼 때, 오히려 대한민국의 민족의식을 미디어에서 지나치게 미화하여 표현했기 때문에 민족성의 양면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반박을 듣는 순간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다. 그 학생의 반박처럼 미디어가 제공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못한 것을 반성하기도 했지만, 나의 발언이 다른 주제와 연관되어 반박당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새롭게 느껴졌다. 민족주의에 대한 토론이 어느새 미디어에 대한 토론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온 것이다. 이처럼 실시간으로 생각을 주고받는 것은 넓고, 깊게 생각하도록 만들었고, 도서의 한 문장을 읽을 때에도 조금 더 생각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이해와 소통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다양한 것들을 배웠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도 했지만, 교수님께서 첫 번째 강의에서 토론의 중요성으로 강조하신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힘도 키우게 되었다. 일방적인 강의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진 초·중·고등학교의 수업에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생각을 말할 기회가 줄어들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말’로 가득한데, 역설적이게도 현대의 대학생들은 면접이나 발표를 위해 스피치 학원을 다니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은 나에게도 해당 된다. 매일 매일 말하면서 살아가지만, 토론에서 한 번의 발언을 하기 위해 하나부터 열까지 생각한 뒤, 고속도로를 자전거로 주행하는 심정으로 발언했다. 토론, 발표 할 때 전혀 긴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소·세 첫 토론과 마지막 토론을 비교했을 때, 말하는 것이 한결 자연스러워졌다. 교수님

께서 모든 토론 과정을 녹화해서 수업 커뮤니티에 등록해주신 덕분에 말할 때의 시선 처리나 목소리 크기, 더 유의해야 할 발음을 스스로 깨달았고, 이를 고치도록 노력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우진 교수님의 이해와 소통 세미나를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바로, ‘한우진 교수님’의 이해와 소통 세미나이기 때문이다. 첫 강의부터 마지막 강의, 중강을 한 뒤에 성적 공지가 있기까지 교수님은 매번 친절하셨고, 항상 열정적이셨다. 살면서 꼭 읽어봐야 할 비극 작품으로 꼽히는 ‘오이디푸스 왕’과 ‘맥베스’를 읽고, 두 번째 화상 토론이 끝날 무렵에 내가 했던 부끄러운 질문을 잊을 수가 없다. “교수님! 이런 비극 작품들은 결말이 우울하고, 조금은 기분 나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어째서 꼭 한 번 읽어봐야 할 명작인가요?” 지금까지 줄거리만 알고 있던 명작을 직접 읽었다는 점에서 뿌듯하긴 했지만, 문자 그대로 비극의 비극적인 결말은 독자인 내게 의문점을 주기도 했다. 우울하고, 기분 나쁜 결말을 가진 작품이 어째서 ‘꼭 읽어봐야 할 명작’일까? 그리고,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봐도 될 수준의 질문을 화상 채팅으로 두 번째 만난 학생들 앞에서 발설하고 만 것이다. 하지만, 교수님은 언제나 그렇듯이 명작의 중요성과 원서로 읽지 않았을 때 느끼지 못하는 작품성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 교수님의 자세한 설명 덕분에 나의 질문을 명작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 된 것 같았고, 나는 작품의 높은 가치를 더욱 실감하고 싶어 방학에 따로 시간을 마련하여 비극을 원서로 읽을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또한, 교수님께서도 어떠한 의견도 ‘틀렸다’기보다는 ‘다르다’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다. 모두의 의견을 수용해주시고,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때로는 극단적인 가상의 전제를 통해 시사점을 만들어 주시기도 했다. 한우진 교수님이 계셨기에, 토론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것을 단언할 수 있다. 더불어 철학적인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철학에 대해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우진 교수님의 열정은 글쓰기 수업에서도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글쓰

기는 도서에 대한 서평 쓰기과 논증 글쓰기로 이루어졌다. 초안에 대한 1차 피드백은 학생들끼리 할 수 있도록 조를 편성해주시고, 수정한 글에 점수를 매겨 교수님께서 따로 첨삭을 해주시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하지만, 학생끼리의 첨삭 과정에서도 교수님께서 모든 학생의 글에 짧은 첨삭이나 더 생각해보아야 할 점,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등을 짚어주셨다. 이 강의만 맡으신 것도 아닐 텐데, 모든 학생의 글을 읽어보시고 직접 첨삭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그리고, 나의 글을 다른 사람에게 첨삭 받음으로써 더욱 풍부하게 글을 구성할 수 있었다.

특별히, 한우진 교수님의 1학기 이·소·세 마지막 강의는 앞으로의 대학 생활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큰 자극을 주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나와 같은 마음으로 입학하는 학생을 많이 보았고, 이런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활동을 통해 지금은 멋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마치 정곡을 찔린 것 같았다. 그리고, 그러한 학생들의 마음을 알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적성도 중요하지만,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적성만큼 중요한 다른 부분이 있다는 현실적인 조언을 얻기도 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 형식적인 활동만 하지 말고 도전하는 대학 생활을 보내면 어느새 졸업을 한 뒤, 꿈꿔온 길을 걷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도 갖게 되었다. 교수님 말씀처럼, 자랑스러운 덕성여대를 졸업하신 선배님들과 같이 나도 우리 학교의 든든한 기반을 발판으로 멋지게 사회에 나아가 학교를 빛내고 싶다는 의지가 불타올랐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과 강의 내용 외에도 강의 구성 방식 또한 앞으로의 일상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화상으로 토론하는 것은 복장이나 통학 거리의 부담이 없어 편하기도 하지만, 전자 화면을 보고 의견을 발표한다는 것은 실제 대면에서 토론하는 것 보다 더욱 긴장하게 만든다. 이·소·세에서 1학기 동안 매주 화상으로 토론 한 덕분에 화상 회의에 대한 부담이나 긴장이 많이 줄었고, 이는 1학기에 한 번 있었던 영어회화 실시간 자유 대화에서 발휘되었다. 이·소·세를 통해 'ZOOM'으로 대화하는 것에 많이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운 모

습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전히 토론은 긴장되고, 독서는 힘들며, 철학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한 이해와 소통 세미나는 항상 즐거웠다. 그동안 입시를 위해 공부한 내용과 방식이 매우 달라서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수업이 거듭될수록 이러한 강의가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문이라는 것을 느꼈다. 스스로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나의 생각을 만들어 나가는 힘을 키우는 것. 이해와 소통 세미나를 통해서 대학 학문에 대해 배우고, 한우진 교수님을 통해 대학 생활에 대한 애정이 생겼다. 덕성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이·소·세에 참여해 많은 것을 배우거나 한우진 교수님의 강의에 참여해 많은 것을 느끼길 바란다.

덕성인이 추천하는 좋은 강의 에세이

담당교수 소감문

한우진(철학전공)

학생과 강의자가 함께 성장하는 지적 공동체를 지향하며

이해와 소통 세미나, 일명 이소세는 애증의 대상입니다. 원래 필수교양이 좋은 반응을 얻기는 어렵지만, 이소세는 더욱 그러합니다. 아무래도 재미있게 잘 정리해주는 강의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운 고전 텍스트를 읽고서 토론하는 소규모 세미나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박세은 학생이 수상 소식을 알렸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이소세에, 그것도 1학년이 대상이라뇨!

저는 분야별로 선정한 10권의 책을 학생과 같이 읽었습니다. 학생이 다 읽고서 토론에 참여하도록 어려운 내용은 중편을 고르거나 중요한 챕터를 골라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읽은 책을 바탕으로 서평과 논증 비판을 하나씩 쓰도록 했습니다.

아마도 이소세를 강의하는 분은 다른 강의자의 글쓰기 수업이 궁금할 것입니다. 저는 먼저 글쓰기 교재를 통해 감상문, 리뷰, 서평의 성격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서평을 쓰는 부담을 덜기 위해 감상에서 시작해서 근거를 통해 객관적 평가로 옮겨쓰도록 유도했습니다. 논증 비판의 경우, 논증에 관한 간단한 이론을 설명한 후 자신이 고른 한 대목에 집중하여 결론과 근거를 찾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학생은 자신의 의문점을 바탕으로 논증을 평가하고 평가의 근거를 제시하는 글을 썼습니다. 저는 단계별로 글을 완성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자기가 고른 책과 논증 소개(왜 선택했는지, 어떠한 점에서 매력적인지), 책과 논증의 내용 설명, 자신의 평가와 근거 제시 등의 과제를 차

근차근 냈습니다. 과제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먼저 말로 설명을 하고서 이를 바탕으로 글을 쓰도록 유도했습니다. 초고 완성 후 동료 참석 워크샵을 가지며 저도 조언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을 거쳐 최종 제출한 글을 참석했습니다.

독서 세미나에는 특별한 강의법이 없습니다. 책을 읽고 와서 생각을 나누는 것이 전부이지요. 독서 토론 세미나는 매주 2시간 화상 세미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특히 모두가 발언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사실 이소세 강의를 해온 지 꽤 되었지만 학생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 한 권이라도 더 읽고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욕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에 적지 않은 비용을 낸 후 상당한 길이의 감상문을 미리 올려야 참석할 수 있는 북클럽에 참여했습니다. 팍팍한 생활에 지쳐 새로운 활력을 찾으려는 다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책과 토론에 목말랐던 여러 사람을 보면서 학생 시절 고전을 읽으며 느꼈던 감동이 되살아났습니다. 또 연구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교양인이 자신의 관점에서 느끼고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소세가 벤치마킹한 세인트 존스(st. John's) 대학의 독서토론 세미나가 국내 다큐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세미나 후에 강의자는 자기가 여기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며, 자신도 처음에는 말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도 세미나 중에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면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 다큐 장면을 떠올립니다. 학생의 말은 고전의 깊이를 다 담아내지 못할지라도, 그 학생의 시선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의 생각을 자극합니다. 박세은 학생의 에세이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말을 하지 않는 순간에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며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책을 읽으며 생각은 더 깊어집니다. 강의자도 들으면서 오히려 생각을 더 많이 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1학기 이소세에는 이러한 저의 깨달음을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이소세는 지적 공동체로서 우리 대학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소세이지만,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보람을 느낀 만큼 학생은 지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인지 졸업생들은 이소세를 추억하며 책을 더 읽히라고 하지요. 박세은 학생의 대상 수상을 축하하며, 이소세를 통해 스스로 깨달은 것이 대학생활과 그 후의 삶에서 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다

박지나(심리학과)

佃 추천강의명 : 낮설게 보는 한국문화

佃 담당교수 : 정진웅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는 “많은 공부와 지식이 곧 지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사람이 공부만 한다고 지혜를 얻을 수는 없다. 다른 방식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는 지혜를 얻으려면 스스로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

그렇기에 나는 이 강의가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이 강의를 통해 나는 한국문화의 이면만이 아니라, 인생의 지혜까지도 배울 수 있었다. 교수님은 교수님 자신이 살면서 깨닫고 느껴 오신 바를 아낌없이 말씀해주셨다. 그런 교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학우들의 솔직한 사연과 의견 속에서 지혜를 배울 수 있었다. 강의에서 얻어가는 배움의 기쁨과 감동이 너무나도 컸기에 어느 순간부터 나는 ‘낮설게 보는 한국문화’ 강의를 듣는 화요일과 목요일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2019년 2학기를 즐겁게 보내게 해 준 데에는 이 강의가 큰 역할을 해주었다.

수업 방식은 다음과 같았다. (2019년 2학기 수업 기준이다.) 보통 한 주에 하나의 수업 주제를 공부한다. 매주 학생들은 다음 주에 수업할 주제에 맞는 읽을거리를 미리 읽어 와야 한다. 읽을거리 목록은 교수님께서 학기 초에 미리 다 올려주신다. 읽을거리는 교수님이 선정하신 발췌문들이다. 교수님은 읽을거리와 관련지어 설명하시기도 해서 읽을거리를 꼼꼼

히 읽어올수록 수업에 더 잘 집중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읽을거리를 읽은 후, 느낀 점을 기반으로 쪽글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쪽글은 한 학기에 최소 세 번 제출해야 한다. 중간고사 시험은 없지만 전반적인 수업에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레포트를 작성해야 한다. 기말고사 시험은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 논술형 시험이다. 학기 초에 교수님께서 기말고사 예상 문항들을 올려주시기에 시험 준비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평소 수업을 들으면서 예상 문항의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식으로 시험 준비를 하면 된다. 기말고사 문제가 예상 문항과 똑같이 나오지는 않지만, 평소 수업의 흐름을 잘 따라가고 필기를 놓치지 않았더니 쉽게 풀 수 있었다. 희망자에 한해 기말고사 시험을 발표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했다.

주로 화요일에는 교수님이 수업 주제에 관한 이야기(주제에 관련된 개념 설명, 사례, 교수님의 의견 등)를 하시고, 목요일에는 교수님이 학생들이 써온 쪽글들 중 일부를 골라 읽어주신다. 교수님이 주로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교수님이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형식의 수업은 아니다. 학생들은 언제든지 수업 도중에 손을 들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한마디로 자유로운 논의가 이루어지는 강의였다. 교수님은 학생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수업 중간 중간 학생들의 생각을 말해달라고 하셨다. 교수님은 자신도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배워나가는 입장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교수님께 존중받는 기분이 들어 감사했다. 선생님께 일방적인 가르침을 받던 초·중·고등학교 수업에 익숙해져 있던 나였기에 스승이 제자의 의견을 통해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었다.

교수님은 정말 학생들로부터 배워나가려는 자세로 수업에 임하셨다.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들어주셨고, 의견을 존중해주셨다. 가끔 교수님이 학생의 의견을 듣고 반박하는 질문을 던지시기도 한다. 하지만 교수님이 그것은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아서 던진 질문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을 던져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교수님의 질문은 생각이 고여 있지 않도록, 새로운 생각의 물꼬를 틀어주려는 목적을 띤 것 같았다. 교수님과 학

생간의 오고가는 질문과 대답을 들으면서 나도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었다.

나는 나서는 걸 잘 못하는 성격이라 수업 중에 공개적으로 내 생각을 말한 적은 없었다. 대신 수업에서 오고가는 의견들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데에 집중했다. 그리고 읽을거리를 꼼꼼히 읽고, 쪽글에 내 생각과 의견을 담는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비록 직접 의견은 내지 못했지만, ‘교수님이 쪽글을 읽는 시간’ 덕분에 나도 공개적인 의견을 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교수님은 내가 쓴 쪽글을 몇 번 공개적으로 읽어주셨다. 내 진술한 이야기가 적힌 나의 쪽글은 교수님의 입을 통해 학우들에게 전달되었다. 교수님은 내 이야기에 대한 피드백도 해 주셨다. 쪽글에 X표를 쳐서 제출하면 교수님이 해당 학생의 익명성을 보장한 채로 피드백을 해 주시기에 그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다. 덕분에 나는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고 뿌듯함을 즐길 수 있었다. 나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학우들이나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사연을 가진 학우들도 쪽글의 이점을 느꼈으리라 생각한다. 쪽글의 익명성 덕분에 마음 놓고 진술한 이야기를 적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학우들의 쪽글 속 진술한 생각과 사연 덕분에 보다 깊고 다양한 관점의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다.

결론적으로 교수님의 이야기에 학생들의 솔직한 의견이 더해져서 생각은 더욱더 풍성해졌다. 교수님은 그 덕분에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곤 했다. 수업의 자유로운 형식 덕분에, 나는 매 수업에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배우게 될지 예측할 수 없었다. 수업의 주제는 정해져있었지만 그 흐름이나 내용은 정해져있지 않았다. 강의의 후반부에는 발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직접 수업 주제를 정해서 발표하기도 했다. 교수님과 학생이 같이 만들어가는 형태의 강의. 너무나도 신선하고 재밌는 형태의 강의였다! 수업 전날이 되면 느끼던 설렘은 강의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 같다. 대학에 입학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강의를 듣기 위함이라 생각한다.

강의의 목적은 강의의 이름과 걸맞게 ‘한국문화를 낯설게 보는 것’이다. 여기서의 문화

란 예술과 관련된 문화가 아니라 사회의 생활양식, 신념, 행위 등을 뜻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이다. 즉, 이 강의는 한국인으로서 살아오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던 몇 가지 것들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바라보려는 목적을 띠고 있다. 나에게서는 이 강의가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기회였다. 평소 우물 안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은 자주 했지만 스스로 이전의 사고를 깨부수기는 쉽지 않았다. 누군가와 함께 해야 한다. 교수님이 새로운 관점을 던져주시고 학우들이 의견을 공유해 준 덕분에 나는 우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 수 있었다. 그리고 매 강의마다 충격을 경험할 수 있었다.

수업 주제는 환경 파괴, 성차별, 노인 혐오 등 사회의 문제점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한 학기 동안 전반적으로 어떤 주제가 어떤 식으로 어떤 타자를 열등한 대상으로 규정하는지 배웠다. 한국의 지배문화가 누구를 대상으로 타자화를 하고 있었는지, 어떤 언어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는지 처음으로 느껴보게 되었다. 교수님은 일상의 표현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도록 방향을 제시해주셨다. 아무 문제없어 보였던 일상의 몇몇 표현들이 알고 보니 차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지방에서 올라온다.’라는 표현이 그러하다. 지극히 서울 중심적인 사고의 표현이다. ‘지방 사람들’이라는 표현도 비슷하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을 ‘지방’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묶어서 지칭해버린다. 한국을 이분법적으로 ‘서울’과 ‘지방’으로 나누어 사고하는 데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그 외에도 ‘사투리를 고친다.’, ‘사투리 하는 것 귀엽다.’ 등의 표현이 있다. 나에게도 서울 중심적 사고가 있었다. 그리고 그런 사고에서 비롯된 표현을 사용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악의를 가지고 하게 된 생각과 표현은 아니었지만 죄책감과 창피함이 크게 밀려들어왔다.

교수님께 굉장히 감사했던 부분은, 문제점은 이해하되 반성하지 말라고 말씀해주신 부분이다. 학생들이 너무 큰 죄책감에 빠지는 것, 학생들이 스스로에게 하는 것처럼 타인의 행동을 하나하나 문제 삼으며 괴로워할 것을 우려한 데서 비롯된 말씀이었다. ‘사람은 모두 완벽하지 않다, 사람들은 표현들의 성격을 전부 알지 못하고 악의 없이 그것을 사용하

는 선량한 차별주의자일 수 있다,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되는 것도 지배문화의 영향 때문이다.’ 교수님은 내게 이 세 가지를 일깨워 주셨다. 그 덕에 자기반성의 목적을 띤 속앓이를 하기 보다는 이 잘못된 지배문화를 어떻게 바꾸어나갈지 궁리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그것이 진정 내 행동을 반성하는 길일 것이다. 나의 이전 행동의 잘못된 부분을 깨달을 수 있어서, 그리고 지배문화로 인해 타자가 된 사람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다. 나는 지금도 조금씩 지배문화에서 비롯된 잘못된 사고와 표현들을 고쳐나가는 중이다.

한편으로는 강의 덕분에 나의 생활패턴의 이면도 알 수 있었다. 나의 생활패턴은 지배 문화를 따른 것이었다. 세상에는 최대한 잘 먹는 삶, 최대한 많은 것을 소유하는 삶, 최신식 물품들을 장만하는 삶이 행복하고 성공한 삶이라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다. 나도 그런 삶을 동경했다. 어릴 때부터 그런 삶이 멋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영화나 드라마 등을 보고 자라왔기 때문이었다. 교수님이 보여주신 다큐멘터리는 맥시멀라이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환경이 파괴된다는 내용이었다. 내가 추구한 삶이 환경을 파괴하는 삶이었기에 다큐멘터리를 보고 난 후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 교수님은 맥시멀라이프가 환경을 파괴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과연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지셨다. 교수님의 질문에 의해 환경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숙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내가 생각한 행복의 삶이 과연 정말로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삶인지도 돌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소박하고 단순한 삶이자, 내가 가진 최소한의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인 ‘미니멀라이프’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일부 수업 주제는 지배적인 문화가 세워놓은 틀의 갑갑함을 알게 해주었다. 자연스럽게 행동해도 괜찮은데, 내가 굳이 사회적 통념에 따라 행동해온 것들이 많았음을 깨달았다. 예를 들면, 나는 ‘생리’를 감추려 했다. 남녀공학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 ‘생리’라는 단어는 금기어였다. 대놓고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놓으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기에 완곡하게 표현

해야만 했다. 생리대는 조용히 숨기고 다녀야 했다. 그것이 버릇이 되어서 지금도 나도 모르게 생리대를 감추려 할 때가 많다. 교수님은 생리가 자연적인 현상일 뿐인데 왜 불경한 것처럼 감춰야 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하셨다. 생각해보니 내가 왜 생리사실을 숨겨와야만 했는지 납득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일부 지배문화의 갑갑한 측면을 인식하고 나서 내 생활 전반을 돌아보았다. 일상에서 사회적 통념에 따라 지키고 있는 행동들이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틀에서 벗어나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사회적 통념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 융통성 있게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강의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교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신 ‘타인을 이해하는 태도’였다. ‘타인을 이해하는 태도’는 타인이 어떤 행동을 하던 간에 그 타인을 이해하는 태도이다. 이해만 할 뿐이지 수용하지는 않는다. 타인이 악의 없이 행동했을 가능성, 모두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 타인의 행동에 악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타인이 악의에 찬 행동을 하게 만든 그 타인의 인생이나 상황을 추측하고 이해해야 한다. 나는 왜 악의를 가진 타인조차도 이해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교수님이 계속 이해와 수용은 다르다고 말씀해주셔서 납득할 수 있었다. 이에 관련해서,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자가 겪어온 인생과 상황을 살펴보고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처지에 내몰리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어떤 학우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교수님이 이런 태도를 강조하신 이유는 타인을 미워하면 가장 괴로운 건 본인이기 때문이다. 교수님은 학생들이 타인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곱씹으며 괴로워하기보다, 훌훌 털어내길 바라신 것 같다. 처음에는 이런 태도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교수님의 의도를 알고 나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강의가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강의를 듣고 나서는

사회의 문제점이 더 눈에 잘 들어올 수밖에 없다. 혹은 자신이 타자가 되었던 사연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교수님은 이 점을 이해하고 계셨다. 그래서 자칫 학생들이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볼까봐 걱정하시고, 일종의 예방책으로 ‘타인을 이해하는 태도’를 거의 매 수업마다 강조하신 것 같았다. 마치 <걸리버 여행기>의 걸리버처럼 되지 않길 바라신 것 같다. (걸리버는 말(馬)들의 왕국이자, 이성적인 왕국인 후이눔에 다녀오고 나서 인간들에게 염(厭)증을 느낀다.) 그런 교수님의 배려에 따뜻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교수님은 강의에서 살펴본 문제점이 나타나는 상황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일상에서 ‘타인을 이해하는 태도’로 살아가길 바라셨다. 그래야 보다 일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수님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 태도로 살았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낀 것 같았다. 교수님의 인생철학이라 불려도 될 것 같다. 교수님이 강조한 ‘타인을 이해하는 태도’는 교수님이 소개한 ‘자신을 사랑하는 법’과도 어느 정도 맞닿아 있었다. 교수님이 소개해주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은 어떤 선행의 방법이었다. 타인의 결점을 이해하고 타인을 사랑하려 노력하면, 나 자신의 결점도 이해하게 되고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교수님의 말씀대로 타인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계속 곱씹으면 괴롭기만 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과거의 슬픈 기억에 쉽게 우울해졌다. ‘타인을 이해하는 태도’를 내가 받은 상처에 적용해 보았는데, 긴 시간동안 나를 괴롭혀온 기억에 드디어 끝맺음이 생긴 기분이 들었다. 이후 일상 속에서 타인을 보고 불쾌감이나 속상함이 들 때마다 교수님이 알려주신 태도를 적용하려 애쓰게 되었다. 이것이 쉽지는 않지만, 지금도 화가 날 때마다 교수님이 알려주신 태도를 떠올리려고 노력한다. 이런 노력들은 나의 기분을 보다 편안하게 해주었다. 내가 피하고만 싶었던 사람이 더 이상 피하고 싶은 상대로 보이지 않게 되자 너무 놀라웠다. 이전에는 피하고 싶은 사람을 마주칠까봐 걱정을 하고 마음속으로 온갖 괴로움을 느꼈지만, 더 이상 그런 괴로움이 느껴지지 않았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나의 노력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싹트기 시작한 것 같다. 물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사랑을 느낀 것은 아니지만, 이 작은 변화가 큰 사건처럼 다가왔다. 교수님은 근본적으로 따뜻한 인류애를 느끼게 해주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 싶다. 결론적으로 나는 강의를 통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까지 배웠다. ‘타인을 이해하는 태도’로부터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종강 이후에도 한동안 내 마음속에 강의의 여운이 남아있었다.

종강 이후, 나의 시야는 그 전보다 많은 사회의 문제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넓어졌다. 일부 편견들은 깨어졌으며 전에 비해 지배문화에 의해 소외된 대상들을 의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은 그 전보다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강의를 듣기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나는 많이 달라졌다고 느낀다. 오리엔테이션 때 교수님이 이 강의를 듣고 나면 본인이 푹푹해졌음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사실 그 말씀을 신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말로 나에게 변화가 찾아왔다. 내가 푹푹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고방식에 변화가 생겼다.

이 강의는 덕성여대에 입학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 요인 중 하나이다. 강의를 수강한 데에 감사함을 느낀다. 이 강의는 학우들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다. 모두에게 이 강의를 들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음이 참으로 아쉽다. 아쉬운 대로, 타 대학 친구들이나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 강의로부터 배운 것들을 이야기하곤 한다. 내가 계속해서 이 강의에서 배운 것을 전할 수 있도록, 강의로부터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평생 되새기고 싶다. 정진웅 교수님과 2019년 2학기에 같이 강의를 수강한 학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덕성인이 추천하는 좋은 강의 에세이 담당교수 소감

정진웅 (문화인류학과)

집단지성의 가능성이 실현되는 곳으로서의 강의실

〈낮설게 보는 한국문화〉 수업을 좋은 강의로 추천해 준 박지나 학생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모르는 사람과의 만남이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될지 미리 알기 어려운 것처럼 제 강의가 각기 다른 삶의 이력을 지닌 다양한 수강생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때론 저의 강의가 짐작하지 못했던 의미로 수강생에게 다가가게 되는 경우들을 접하게 되면서, 강의란 결국 사람 사이의 다양한 만남의 형식 중의 하나라는 평범하지만 잊기 쉬운 사실을 새삼 되새겨 봅니다. 그래서 좋은 강의란 결국 좋은 만남과 마찬가지로 서로에게, 특히 수강자들에게 긍정적 의미로, 그래서 강의자에게도 긍정적 의미로 남는 만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경험을 돌이켜보면 볼수록, 좋은 강의에 필요한 것들은 결국 사람 사이의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평범한 사실을 되새겨보게 됩니다.

학생들과의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 요소로 학생들을 단지 ‘가르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강의자와 동일한 ‘인식과 사유의 주체’로 승인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들 수 있습니다. 선생으로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찌 보면 당연한 이런 태도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도 그리 오래지 못합니다. 학생들은 각자 고유한 경험, 인식, 서사의 주체로서 수업시간에 우리 주변의 현상이나 경험들의 의미를 낮설게 살피고 따져보는 작업에 제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시선과 관점들을 보태줍니다. 학생들의 의견에 대한 존중, 그로 인해 가능한 수업시간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은 어떤

특정한 현상을 바라보는 강의실 전체의 시선을 보다 폭넓게, 깊이 있게, 날카롭게 만들어 줌으로써 새로운 시선의 성취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학생과 선생은 공히 수업이라는 시공간을 ‘집단지성’의 가능성이 실현되는 현장으로서의 생생히 체험하게 되고, 또 그렇게 ‘진화한’ 분석적 서사의 ‘뿌듯한’ 수혜자가 됩니다.

학생들과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마주치다 보면 질문이나 토론을 통해 선생으로서의 저의 인식과 사유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지적 성장의 계기가 주어집니다. 한국의 교육 풍토에서 선생이 자신의 얘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낯설면서도 유쾌한 일종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 학생들에게는 자신들과의 부딪침의 과정이 선생의 지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일은 자신들의 지적 역량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또 지적 토론의 가치를 실감하게 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허술한’ 얘기를 더 자주 해서 학생들이 제 사유의 약점과 한계를 지적해 주는 경우가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엉뚱한 생각이 떠오른 적도 있습니다.

강의라는 만남을 통해 제가 선생으로서 조금이라도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이 저의 얘기와 표정과 몸짓에 진실하게 반응하고 질문하고 의문을 제기해 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대학 강의실에서의 만남은 흔히 ‘창백한’ 만남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강의자와 수강자 사이에 존재하는 일종의 ‘거리’는 역설적으로 부모자식, 친구, 애인 사이에서는 쉽게 하지 못하는 질문과 생각들을 좀 부담감을 덜고 펼쳐놓을 수 있는 소통과 성장의 공간으로 교실을 바꾸어 낼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의실을 삶에 대한 질문을 공유하는 학생들이 선생과 함께 일종의 ‘지적 해방구’로 만들어 내는 일이야말로 아직도 대학 강의실에서 추구되고 달성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역동적 만남을 만들어 내는 일은 결코 강의자의 역량만으로는 이룰 수는 없습

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이제까지 한국사회의 입시교육이 강요해 온 수동적 학생의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교실을 자신의 참여로 인해 새롭게 열리는 공간으로 만들어 내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자신의 얘기가 다른 수강자들에게, 혹은 강의자에게 어떻게 비칠지 하는 걱정을 좀 접어두고, 그때그때 머리에 떠오르고 마음을 움직이는 얘기들을 공적인 이야기거리로 선선하게 펼쳐 보이는 일종의 ‘거리낌 없는 태도’를 기대하게 됩니다. 수업이든 인간관계든 무엇이든 우리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사태를 진지하게 대면하고, 이에 솔직하게 반응하고, 이를 정직하게 성찰할 때 좀 더 성장하게 됩니다. 다시 좋은 인연들을 기다립니다.

노동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

김다은(글로벌융합대학)

배 추천강의명: 인권과 노동법

배 담당교수: 김영호

올 해 신입생인 나는 처음으로 대학 수업을 들으며 고등학교에서 들던 수업과는 결이 다른, 좋은 강의들을 많이 들었다.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강의는 김영호 교수님의 ‘인권과 노동법’이다. 노동‘법’에 대한 강의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강해 어려울 거라 예상했고 배우다보니 확실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사례를 통해 최대한 쉽고 재밌게 수업하셔서 조금만 집중하면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어려움에 비해 얻어가는 것이 훨씬 많았다.

이십 년 살면서 나도 노동을 해 본적은 있지만 몇 달 하고 그만둔 알바 몇 번이 다였다.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노동은 상당히 적었다. 그러나 수업을 통해 노동법뿐만 아니라 노동 자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게 되니까 내가 해 본 노동이든 해보지 못한 노동이든 직종을 떠나 모든 노동과 노동자를 그 전과는 깊이가 다른 존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노동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 문제에도 관심 갖는 태도를 갖출 수 있었다. 교수님께서 수업 중간에 그날 배우는 노동법과 관련한 드라마나 영화, 뉴스 영상들을 보여주시니 자연스럽게 사회노동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며 노동법이 정말 우리 사회에 가까이 존재하는 법이라는 걸 느꼈다. 그동안 파업에 대한 뉴스를 들어도 파업에 대한 개념도, 그 개념을 배울 기회도 없어서 무관심하게 넘겼었다. 그러나 강의를 통해 노조와 파업에 대한 기본지식이 생기고보니 그저 배차간격이 길어진 지하철을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닌, 기다리는 행위를 통해

서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더 관심 갖고 제대로 혹은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그 계기가 된 것 같다. 그전까지는 관련 지식도 없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며 대충 넘어갔더라면 배경 지식이 조금 생기고 나니 더 관심 가지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특수고용직에 대해 배우고 최근의 에어컨 설치기사님의 죽음과 그 죽음의 불공평함을 이해하게 된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세상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세상에서 내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노동법을 배운 만큼 많아지니까 내 세상도 자연히 넓어졌다.

그러나 가장 좋았던 점은 직접 내 노동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 직장생활처럼 본격적인 노동을 해보진 않았지만 그동안 나도 나름의 노동을 했었다. 중학생 때 친구 소개로 했던 뷔페 알바를 시작으로 전단지, 카페 알바 그리고 지금은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다. 어쩌면 알바를 하면서 배운 내용을 내 상황에 대입해서 생각해볼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흥미롭게 들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지금 처음 3개월 동안 7500원, 그 다음 3개월은 8350원, 일하고 6개월이 지나야 최저시급 8590원을 받는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그동안의 알바는 최저시급 이상의 돈을 받았었기에 처음 경험하는 계약 조건에 놀라긴 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알바자리도 많이 없어, 찝찝하지만 결국 알바를 하게 되었다. 이것이 위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주변에서도 편의점 알바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다. 그렇게 찝찝한 상태로 일을 하다 보니 열심히 하기도 싫어졌고 답답함은 늘어갔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정확히 설명해야 할지 모른 채, 일을 계속 했다.

그 와중에 학기가 시작되어 인권과 노동법 수업을 듣게 되었다. 첫 주차 수업에 노동법의 필요성과 근로계약에 대해 배웠다. ‘노동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해놓은 것은 최저기준이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계약서는 효력이 없다.’, ‘편의점과 같은 단순 노동은 수습 기간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한 주, 한 주 수

업을 들으면서 내 계약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자세히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차치하고 내가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근로기준법이 명시한 최저기준을 무시하는 것이 곧 나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상당히 당연한 말이라고 느껴지겠지만 이 당연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직접 말로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다. 노동법을 지키는 것이 곧 내 권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이런 상황을 아마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지쳐 그만두거나, 혹은 참고 끝까지 일했을 것 같다. 친구들이 ‘원래 편의점 알바는 다 그런 식이야.’라고 조언했던 것처럼 시급을 깎인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세상의 본모습이라 여기며 지냈을 것이다. 그러나 최저시급과 같은 법률이 인간에 대한 예의에 기초해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최저시급을 안 챙겨주는 것이 단순히 돈을 적게 받는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돈 천원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게 민망한 행동이 아니라, 그 천원을 깎는 사용자가 잘못이고 그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나의 권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나는 이것이 평생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깨달음이라고 생각한다. 노동법을 배우고 노동법은 물론 내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나니, 내게도 노동환경에 대한 최저기준이 생겼다. 그전에는 그저 돈을 벌 수 있다면 아무 일이나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었다면 노동법을 배우고 난 후부터는 내 사용자가 노동법이 보장하는 내 권리를 제대로 잘 지키는지가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되었다. 세상의 여러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했던 내가 노동에 있어서는 내 인권에 대해 잘 모르고 침해당하며 있었다는 사실이 좀 놀라웠다. 인격적인 존중도 내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지만 법에 명시된 내 인권을 보장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

이걸 깨닫고 나니 이제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만약 내가 말씀드리지 않고 계속 다니거나 혹은 아무 말 없이 그만둔다면 이 업주는 나와 같은 또 다른 노동자에게 같은 조건의 계약서를 내밀며 또

그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할 것이다. 그것이 당연한 듯 굳어지면 세상은 나아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그 사장님에게 고용되는 노동자들의 세상은 나아질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드린다고 곧바로 좋은 세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나와 같은 어린 알바생들이 노동법이 정한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에서 일하는 것이 더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 그 계약 조건이 위법이고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시작된다고 생각했다. 불합리함을 깨고 말하지 않으면 그들이 노동하는 세상은 나아질 수 없을 것이다. 언젠가 교수님께서 교수님은 수업을 함으로써 더 나은 노동현장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나름대로 그렇게 하라 믿는다고 하셨다. 내가 할 수 있는 기여는 강의를 통해 알게 된 노동자로서의 내 권리를 주장하는 아마도 최초의 노동자가 되어보는 것이었다. 그게 이 사장님의 앞으로 알바생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될 거다. 모두가 공평하게 노동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여 노동현장을 개선시키는 사람들이 있다. 나도 노동자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체념하지 않고 배워서 알게 됐으니 깨달은 것을 말하고 다닐 것이라 다짐했다.

그리고 하나 더, 노동은 누구에게나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 했던 뷔페 알바, 전단지, 카페, 지금의 편의점 알바를 하며 나는 늘 힘들었다. 알바가 끝나면 다리에 힘이 풀리고 정신이 멍해 기가 빠졌다. 다들 노동하면서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가 싶었다. 그런 고됨을 느끼는 내가 스스로 참 나약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많다. 그러나 교수님께서 노동은 힘든 일이라고 말씀하시며 교수님 본인도 여전히 노동이 힘들다고 하셨다. 노동이 힘들기 때문에 연차휴가와 같은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고 있는 것이고, 잘 보장받기 위해 알아야 한다. 그러니 이제 나는 노동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에 부끄러움을 가지지 않는다. 노동은 누구에게나 힘든 것이니 노동법이 명시한 나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노동할 것이다.

이처럼 노동법을 통해 전과 똑같은 것을 봐도 더 깊이 이해하니 내가 느끼는 세상이 다

르게 보인다. 노동법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자연히 나의 노동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노동할 그 삶이 참 고될 것 같아 벌써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를 가져 든든하다. 아마 시간이 흐르면 배웠던 노동법 조항 대부분을 잊거나 뚜렷하게 구분하지 못할 것이다. 또 노동법의 세부 사항은 수시로 개정될 것이다. 그러나 ‘노동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노동법 속에 담긴 정신은 영원할 테니 잊지 않고 끝까지 가져갈 것이다. 이로써 나는 그 전보다 더 존엄하게 노동할 수 있게 되었다.

덕성여대에서 인권과 노동법 강의를 신청하기 전에는 알고 있을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했고, 배우기 전에는 마냥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노동법을 ‘인권과 노동법’ 수업을 통해 알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노동 자체에 대한 이해와 이제껏 내가 했던 노동과 앞으로 내가 할 나의 노동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앞으로 더 본격적으로 노동하는 인간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인권과 노동법’ 강의를 통해 더 건강하게 그 세계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노동법은 우리 사회가 노동으로 이루어져있는 것만큼 우리와 가까워 매우 실용적이고 그렇기에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 노동을 하지만 노동을 할 때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의 기본 지식들을 배우지 못한다. 그리고 현재 노동을 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도 이런 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 알바를 많이 해 본 친구들도 그렇고, 직접 알바생을 고용하는 사장님들도 그랬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동법에 대해 잘 모른 채 바로 노동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바로 노동자를 사용한다는 것이 참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 앞으로 내가 속할 노동세계에 건강한 시각을 갖고 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많은 덕우들도 이와 같은 기회를 꼭 잡았으면 좋겠다. 부득이하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으로만 교수님을 뵈었지만 실제 강의실에서 들었다면 더 재밌게 수업을 들었을, 평생에 남을 깨달음을 얻게 된 좋은 강의였다.

덕성인이 추천하는 좋은 강의 에세이 담당교수 소감

김영호(법학전공)

노동법 뒤에서

바이러스라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긴 했지만, 한 학기동안 온라인으로만 강의를 진행해서 수업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못내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강의에 집중하고 있을지도 알 수가 없어서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몇 개 대학밖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교양수준의 노동법인데, 얼마나 그 내용을 잘 전달하고 있는지도 내심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세이를 써 주신 김다은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의 미안했던 마음과 안타까웠던 마음, 그리고 불안했던 마음들이 눈 녹듯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김다은님이 부족한 제 수업을 통해 노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때, ‘수업의 목적은 이루었구나’, 라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한 학기동안 배웠던 수많은 노동법의 조문들 뒤에는 사람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노동법의 전면에 서 있는 화려한 법적 용어보다는 그 뒤에서 힘겹게 그리고 때로는 수줍게 서 있는, 노동하는 사람을 보기 원했습니다. 하루하루 자신의 노동으로 자신과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말이지요.

그런데, 김다은님의 에세이 속에서 법조문의 끝 자락에서 힘겹게 서 있는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알바를 경험한 자신의 모습이 에세이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거기에 머

무르지 않고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서 노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더군요. 그 시선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선이 우리 사회를 바꾸어 가리라는 희망까지 글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사회를 둘러싼 현실이 녹록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지요. 하지만, 차디찬 노동현장의 온도를 경험하더라도 오늘 김다은님의 글에서 보았던 따뜻한 시선을 거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조그마하고 따뜻한 시선이 우리 사회의 희망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수업이 어렵지 않게 다가왔다는 대목에서 안도감을 느낍니다. 법학 전공자들만 듣는 수업이라면 조금 더 법적인 이론과 용어를 사용해서 수업을 진행했을 겁니다. 하지만, 교양이었습니다. 누구나 조금만 노력하면 이해할 수 있는 인권과 노동법 수업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우리 사회의 노동인권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 점은 못내 아쉽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내딛은 직장내 괴롭힘과 플랫폼 노동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노동은 거의 언급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인권과 노동법 수업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과제로 남겨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인권과 노동법을 맡아 강의를 하고 떠나가는 길목에 이런 귀한 글을 마치 선물처럼 안겨 주어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의 강의를 글로 새겨 놓은 것과 같이 저도 김다은님의 에세이에 담겨 있는 따뜻함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우리의 노동현장 속에서 빵과 장미가 공존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앞으로도 인권과 노동법 수업이 그러한 현실을 앞당기는데 조그마하게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수

가르침과 배움과 변화

노미리(영어영문학과)

冊 추천강의명: 영화로 읽는 사회와 문화

冊 담당교수: 김은정

본 강의를 수강신청하기에 앞서 나는 아주 불량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간 교양 과목을 선택할 때 가장 신경 썼던 것은 투입하는 노력 대비 거둘 수 있는 학점의 ‘가성비’였다. 과제는 하고 싶지 않았고, 시험은 되도록 객관식이었으면 좋겠고, 노력하되 전공과목보다는 덜 신경 쓸 수 있는 비중의 수업이 내가 생각하는 교양과목의 정의였다. 영화로 읽는 사회와 문화! 너무나 매력적인 이름이었다. 영화, 두 글자에 누군가 광광 방점을 찍어둔 것처럼 읽혔다. 사회와 문화, 나는 수능 사회탐구과목 1영역을 사회문화로 치렀다. 자신감에 젖어 과목을 장바구니에 넣고, 비로소 수강신청에 성공했을 때에, 나는 당장 A+을 수여받은 듯 안일한 만족감에 도취되었다.

수업은 예상했던 것만큼이나 쉽고 재미있었다. 교안에는 글자가 많지 않았고, 때때로 보는 영화 역시 어렵지 않고 흥미진진해, 언젠가부터 나는 본 과목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러나 모든 게 예상대로였던 것은 아니었다. 수업의 내용은 내가 꿈쩍없이 책걸상에 앉아 볼 여윌었던 그 ‘사회문화’와는 전혀 달랐다. 기능론과 갈등론의 쟁점을 외워 틀린 번호를 골라내는 대신, 마르크스가 사회주의를 주장했던 맥락에 대해 설명을 듣고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를 읽고 올리버 트위스트를 시청했다. 유소년 인구 대비 고령화 인구부양비를 계산하는 대신, 시골 마을에 덩그러니 남겨진 노인 가구의 삶을 촬영한 다큐멘터리를 봤다. 토씨 하나 틀리지 않으려 외웠던 문장들을 실제로 마주하는 느낌은 무척 생경한 것이었다. 숫자



로, 빈칸으로 치환되었던 지문과 선지를 존재하는 대상으로서 목격할 수 있었다. 교수님은 이론 설명 중간 중간에 당신이 실제로 겪은 경험, 직접 수행한 연구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교안은 더 이상 화석화된 글자의 나열이 아니었고, 나는 매 수업 살아있는 무언가와 만나고 소통할 수 있었다.

말 그대로 사회와 문화를 배웠다. 사람이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 사회, 그 안에서 만들어 지는-비가시화 된 관념이지만 보이는 것보다도 확실히 존재하는-문화. 교수님은 우리에게 사회의 구성원이자 문화의 생산자로서 견지해야 할 태도, 주의해야 할 맹점에 대해 말씀하셨다. 선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생의 총체적인 체험에 걸쳐 만들어진다는 ‘취향’, 상징의 망이자 무기인 ‘언어’, 사회의 가치를 배열하고 전복시키는 믿음으로서의 ‘종교’, 공적인 제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적인 ‘사랑’, 개인 모두가 고유하기에 상이하고, 그러므로 공평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인권’. 문화는 이토록 많은 관념으로 촘촘히 얹혀 있어 복잡하지만, 그래서 단단하게 사회를 받칠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며 문화를 향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장엄한 의미인지 깨닫게 되었음은 물론, 인간의 말과 행동은 타인과의 관계로부터 결코 유리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많은 가르침을 준 과목이지만, 그 안에서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인상 깊었던 강의가 있다. 여성인권에 관한 수업이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여성인권에 관한 문제는 ‘뜨거운, 또한 절대 식지 않는 감자’다. 나는 생물학적인 여성이며 여자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다. 여성인권은 나의 인권이며, 생존을 위한 필수요건이다. 교수님은 인권에 대해 강의하실 때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이분법적으로 재단하지 않으셨다. 대신 인권을 유린당한 사람의 삶을 보여주셨고, 가려져 있던 문제를 가시화 시킨 사람들의 희생에 대해 설명하셨으며, 인권이 결코 호오와 우열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가 직접 목격할 수 있도록 매체를 통해 유도하셨다. 성별 고용불평등, 임금불평등, 생존불평등을 취제한 영상을 본 뒤 우리는 쪽글을 제출했다. 교수님은 취합한 경험을 선별하고 쟁점을 도출해 다시 논제로서 보여주셨다.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고, 토론하며 각자의 답을 찾아갔다. 언제나 일방적인 것이었던 수업의 과정이 쌍방향의 소통을 매개로 진행되는 과정을 목격하며 나는 새삼 충격을 받았다. 강의실 이곳저곳에서 모인 진짜 여자들의 이야기가 교안의 여백을 메우고 더 깊은, 자세한, 확실한 인권문제를 묘사했다. 교수님께선 중재자, 사회자, 안내자처럼 우리를 이끌어 비로소 ‘수학’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 본 과정을 통해 나는 참여하는 학습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지 알게 되었다. 이후 어떤 이론을 외울 때에도, 나의 언어로 정리하는 과정을 빼먹지 않았다. 발언하는 학습자는 침묵하는 이보다 더 오래, 많이 생각한다는 것을 수업을 통해 배웠기 때문이다.

가르침은 배움이 되고, 배움은 변화를 야기한다. 그러므로 어떤 가르침은 어떤 존재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킨다. 유구한 역사를 지나온 동안 사회와 문화가 그래왔듯이, 구성원이자 어쩌면 그자체인 인간역시 마찬가지다. 과학의 발전에 따라 사회상과 인간 삶의 모습이 변하는 것처럼, 생각의 발전은 한 인간의 생애를 완전히 뒤바꾼다. ‘영화로 읽는 사회와 문화’는 좋은 수업이 학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나로 하여금 깨우치게 했다. 배움을 발전의 초석으로 삼는 일, 수업의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하여 삶의 조각으로 만드는 일, 편협한 한 사람의 시야만으론 미처 보지 못하는 모순과 행복이 세상 속에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는 일이 얼마나 보람차고 기쁜 것인지 알 수 있게 해주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학위취득은 마치 발달 과업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나 역시 대학교에 입학한 후, 별다른 목적 없이 최소한의 노력만으로 과업을 완성하고자 했다. 지금이라고 해서 뚜렷한 꿈이나 목표가 생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통하는 학습의 기쁨을 알고, 배움으로 변하는 삶의 조각이 사람을 보다 넓은 곳으로 이끈다는 것을 안다. 더 이상 나는 수강신청 장바구니에 과목을 골라 넣을 때에, 기준을 ‘과제 없음’ 이나 ‘부담 없음’ 으로 두지 않는다. 귀찮고, 머리가 아프고, 만족스럽지 않은 학점을 받더라도, 끝낸 뒤 조금이라도 내 발 밑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가르침을 남긴 수업에 별점을 아낌없이 뿌리고 온다. 단 한

조각이라도 나를 변화시킨 과목에 망설임 없이 추천 버튼을 누른다. 가성비 학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변화는 비단 학습 태도나 생각의 방향에서만 일어나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문적 내용에서만 비롯한 것 또한 아니었다. ‘영화로 읽는 사회와 문화’ 과목은 두 번의 감상문 제출 과제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르는 평가체제를 가진 수업이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8할의 객관식 문제와 2할 비중의 논술형문제로 이루어지며, 감상문은 영화를 본 뒤 개인적으로 제출하는 과제였다. 1년 넘게 학교를 다녔지만, 에세이를 쓰는 과정에 대해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다. 방대한 정보의 바다 인터넷을 이용한다면 손쉽게 터득할 수 있었을 것이나, 귀찮다는 핑계로 내 에세이는 늘 주먹구구식의 엉성한 모양을 띤 채 제출되어, 그만큼 어설픈 점수를 받아왔다. 교수님께서도 과제 부여에 앞서,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을 매우 자세히 해주셨다. 에세이를 쓸 때 유의해야 하는 점을 글의 짜임새와 주제의 피력, 제재 활용의 측면으로 상세히 가르쳐 주셨음은 물론, 참고문헌의 인용 방식과 출처 표기 방법에 대한 규칙도 하나부터 열까지 짚어가며 알려주셨다. 이 가르침은 내 학교생활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배움이 되었다. 학술적 글쓰기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며 평가받는지 누구도 나에게 알려 준 적이 없었으며, 나는 성실한 학생이 아니었기에 절대 스스로 탐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수님께서도 작문에 능숙하고 학문에 성실한 학생들만을 수강생의 표본으로 상정하지 않고, 나처럼 게으르고 배움에 열정적이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공평한 가르침을 주셨다. 본 수업 이후 나는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부담을 몇 꺾을지나 덜어낼 수 있었다. 학문적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하는 법,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게 이용하는 방법을 체득한 후, 작문 과제를 마주할 때 마다 마치 무기를 손에 쥐듯한 든든함을 느꼈다. 방대한 학문적 지식을 활용하는 학습 주체로서의 과업에 능숙해지고, 저작권 의식을 고양시킨 한편, 본질적인 작문실력 역시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르는 동안에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서술한 바와 같이

교안의 내용은 어렵지 않은 편이었다. 그렇기에 명시된 정보 대부분이 선지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단어 하나만 대충 넘겨도 실점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었다. 이전에는 객관식 문제를 위한 이론을 공부할 때면, 눈에 익었다는 생각이 들과 동시에 미련 없이 다른 문제로 넘어가곤 했다. 그러나 본 과목은 그런 꼼수가 통하지 않았다. 눈에만 익고 머릿속에 입력되지 않은 정보들이 등급 변별을 위한 지문으로 출제되었고, 모든 문제가 꼼꼼하고 자세히 공부하지 않는 이상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난이도였다. 중간고사에서 실책을 이어서 한 후, 기말고사를 치르기 전에는 눈을 감고도 교안을 전부 기술할 수 있을 정도로 꼼꼼히 내용을 외었다. 내 언어로 직접 내용을 정리해보는 ‘발언’의 학습 역시 빼먹지 않고 수행했다. 논술문제에는 작문과제에 앞서 교수님이 설명해주셨던 기준을 이정표로 삼아 스스로 예상문제를 출제하고 써보는 방법을 통해 대비했다. 이와 같은 능동적인 학습 과정은 과목 자체의 애정에서 비롯했다. 교수님의 수업이 좋았고, 학우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즐거웠으며, 가르침과 배움으로 인해 달라지는 내 모습이 기뻐다.

해당 수업에서 나는 A+를 받았다. 그러나 학기 시작 전 걸었던 기대와 같이 투입 대비 고효율로 받은 점수는 절대 아니었다. 과제도 시험도, 그 어떤 수업을 받던 때보다 열심히 준비해 열렬히 임했다. 이 수업이 ‘좋은 수업’인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서 설명된다. 학문을 두고 효율이나 계산하고 가성비나 운운하던 내가 전공도, 필수교양도 아닌 일반 교양과목의 준비를 이토록 능동적으로 수행했다는 것. 삶의 어떤 부분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를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것. 좋은 수업은 좋은 사람을 만든다. ‘영화로 읽는 사회와 문화’로 인해 내가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확신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나는 스스로가 변화할 수 있는 존재란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리하여 또 다른 좋은 수업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변화는 무언가와와의 작별이고, 동시에 시작이다. 내가 본 과목을 통해 권태로웠던 학습태도와 이별하고 학습주체로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듯이, 또 다른 어떤 학우도 좋은 가르침을 만나 좋은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면 기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영화로 읽는 사회와 문화’ 수업을 추천한다.

덕성인이 추천하는 좋은 강의 에세이 담당교수 소감

김은정(사회학과)

본인이 가르치고 있는 교양 수업 <영화로 읽는 사회와 문화>가 좋은 강의 에세이에 우수상을 받았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우수상을 받았다는 에세이를 읽으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 제 자신이 미처 느끼고 의식하지 않은 점 까지도 지적하면서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과연 그럴 만한 강의였는가에 대해서 되돌아보면서, 다음 학기부터는 좀 더 열심히 준비해야 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자신이 영화를 참 좋아하고 즐기다 보니 단순히 영화를 재미로 보기보다는 가르치고 있는 사회학이라는 학문과 접목해서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으로 개설한 것이 이 교양 수업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십년 가까이 가르치고 있는데, 저번 학기에는 안타깝게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생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수업은 수강한 학생이 언급한 것처럼, 교양이지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서로 교감하는 것이 중요한 수업이고 저도 그 점을 중시하여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학기에는 그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코로나 사태가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어떻게 이 부분을 잘 만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 중입니다.

한편, 이 수업을 가르치면서 저는 자꾸만 나이가 들어가는데 학생들은 변함없이 20대 초중반이므로 그에 따른 연령차, 세대차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영화가 나오면 그것을 사회학적으로 풀어서 학생들과 함께 보면서 조금이나마 젊은 세대의 마음을 공유하고자 하며, 그것이 이 수업을 가르치는 줄

거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 함정이지요. 이에, 에세이를 쓴 학생을 비롯해서 이 글을 읽고 있는 학생들에게 함께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차이를 좀 좁혀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자는 요청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ejkim@duksung.ac.kr).

제가 옛날에 한 번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사회학(을 포함한 사회과학/인문학 전반)이라는 학문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이리저리 치이면서 그 설자리와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학적/거시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을 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가르치고 있는 수업이 이 수업입니다. 고맙게도 ‘좋은 강의 에세이’에 당선된 학생의 에세이를 읽고 나니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더 부끄럽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저 혼자 몰라준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강의 못 들은 사람 없게 해주세요.

김기연(정보통계학과)

畵 추천강의명 : 현대사회의 부족들

畵 담당교수 : 함세정

정말 평범하게도 학창 시절에는 막연히 ‘대학만 진학하자’라는 목표만 있었다. 어쩌면 다른 목표를 세울 기회도, 동기부여도 없었던 것일 수도 있다. 학창 시절 중, 대학 탐방을 통해서 대학생들이 자신의 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 어떻게 대학에 갈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 기회가 있었지만, 내가 직접 대학이 어떤 역할은 하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다. 그 상태로 대학교 1학년이 되어 수업을 들을 때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내가 생각했던 여유로움은 없고 고등학교 생활처럼 바쁘게 흘러갔다. 전공과목인 통계학과 특성상 이론 중심 과목이 대부분이다 보니 새로운 정보들을 주입하느라 유독 바쁘게 흘러간 것 같다.

정신없이 적응하며 1학기를 보내고 2학기를 맞이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 아마 처음으로 동네 친구들이 아닌 전국에서 모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 안에 있던 틀이 조금씩 깨진 시기인 것 같다. 그리고 ‘이해와 소통의 세미나’란 토론 수업에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며 학창 시절에는 부모님들이 안 보여주셨던 어쩌면 관심 밖에 있었던 사회 문제들, 각종 차별들을 대학에 와서야 오히려 나 혼자 마주하게 된 것 같다.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마주하며 느꼈던 그 감정들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다. 대학교 1학년 시기를 돌아보니 ‘혼란’ 그 자체였던 것 같다. 이 넓은 세상 앞에서 한없이 작은 존재인 나를 알고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고, 때로는 좌절감, 때로는 뿌듯함이 공존했던 시기인 것 같다.

그러한 과정을 지나고 2학년 1학기 때 운명같이 한 수업을 신청했다. 바로 ‘현대 사회의 부족들’이다. 이 강의의 특징을 말하자면 ‘문화인류학과’에 개설된 교양이고 대강의 수업이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대면 강의를 하지 못하고 실시간 온라인으로 수업했지만, 대형강의에서는 쉽게 목소리 내기 어려웠던 사람들까지도 채팅으로 손쉽게 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다. 이 강의는 강의명 그대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부족들에 대한 강의이다. 어떻게 다양한 부족이 생겨났는지, 부족들이 어떤 사회현상과 연관성이 있는지 배울 수 있었다. 이 강의의 내용은 평소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고 인간의 행동에 궁금증이 많은 나에게 무척 흥미로운 주제이고 매력적이었다.

이 강의가 좋은 강의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3가지가 있겠다. 첫 번째는 답을 찾지 않는 수업이다. 전공과목이나 다른 교양에서는 나는 학점을 잘 받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다. 그래서인지 배우는 것은 많지만 생각하는 것이 한정되고 정해진 답만 찾다가 돌아보니 나의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반면에 이 교양에서는 내가 고민하는 것들, 사고 할 수 있게 된 영역이 넓어진 것으로 단순히 학점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얻었던 것 같다. 또한, 세상을 알아갈수록 답을 내릴 수 없는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고민과 생각이 많아진 것도 있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고민하던 것, 또는 사회현상이 어떠한 이유로 설명되는구나’에 대해 배웠다.

두 번째는 소통이다. 대학교에 진학하고서는 교수님과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진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마주할 일도 많이 없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적은 대학교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현대 사회의 부족들의 함세정 교수님은 첫날 자신을 부르는 호칭을 교수님이 아닌 선생님으로 하라고 하셨다. ‘문화인류학과’에서는 이렇게 호칭을 부른다고 했다는 점이 놀라웠다. 대학교 1학년 때는 교수님이라는 호칭이 낯설기도 하고 교수님과의 거리가 느껴졌는데 대학에 와서 처음으로 학생들이 이 교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니 친근하면서도 교수자와 학생들 사이의 거리감이 좁혀진

것 같았다. 또한, 함세정 교수님은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항상 학생들에게 사소한, 일상적인 질문(저녁 메뉴, 취침 시간 등)을 해주셨는데 사소하지만 이런 것을 통해 교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 잘 느껴졌고 학생들에게 공감해주시는 것을 보며 교수님이 교수자와 학생 사이의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원래 대면 수업에서는 소그룹을 짜서 계속해서 학생들끼리 토론을 할 기회를 주셨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인 만큼 그룹을 만들어서 채팅으로나마 토론을 하게 해주셨다. 덕분에 교수자와 학생의 소통뿐만이 아니라 수업을 듣는 학생끼리도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일상적인 근황부터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의견을 나누다 보니 이소세 토론에서 느낄 수 있는 복합적인 감정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비대면 수업이지만 교수님의 노력 덕분에 대면 수업의 단점을 비대면 수업의 장점으로 바꾸어 수업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진 것 같다. 하지만 아직 이 교양을 듣지 못했더라면 대면 수업으로 꼭 들어보기를 추천한다.

마지막으로 이 수업의 장점은 읽기 자료이다. 1학년 때 ‘이해와 소통의 세미나’란 수업에서 논문 쓰는 방법을 배우기는 했지만, 이 수업을 듣기 전까지 나에게 ‘논문’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생소했고 ‘내가 과연 논문을 읽을 기회가 있을까? 란 의구심이 항상 있었고 나는 논문과는 관련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교수님이 ‘읽기 자료’로 매주 주제에 맞는 논문이나 책의 부분을 발췌해주셨는데 그제 나에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다. 학생들은 논문을 찾아볼 기회도 많지 않고 읽을 시간도 내기 힘들 수 있는데 교수님은 매주 한 번 1시간씩 교수님과 같이 실시간으로 읽을 시간도 주셔서 덕분에 미루지 않고 읽을 수 있었다. 내가 스스로 시간 내서 읽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수님과 같이 공부하는 그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또한, 읽기 자료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다음 수업 시간에 쉽게 설명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

이처럼 ‘현대 사회의 부족들’이란 교양에 대해 3가지 장점을 언급했는데 이 모든 것은 함세정 교수님의 노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라고 수업의 질이 훨씬 떨어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봤는데 오히려 비대면 수업의 단점들을 보완해주시려는 교수님의 노력에 감동했다.

‘현대 사회의 부족들’은 지금까지 들었던 교양 수업을 통틀어서 가장 만족했던 강의이고 가장 대학 교양다운 수업인 것 같다. 대학 교양의 목적은 단순히 학문적인 정보를 얻어가는 목적도 물론 있겠지만 고등 교육 과정답게 사회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생각할 문제를 던져주는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 내가 지난 1년 동안 대학교 수업을 들으며 물론 좋은 교수님들도 많이 만났지만, 가끔 학생들에게 무관심한 교수님과 일방적으로 수업하시는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며 실망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부족’의 강의를 듣고 난 후에는 대학강의다운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에 기쁘기도 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컸다.

나는 음식점을 고르거나 제품을 살 때 단편적인 평가를 보고 고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취향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단편적인 내용만 보고 믿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사람이 느낀 후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다른 사람이 선택하는데 분명히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나도 모두를 만족시키는 강의를 추천할 수는 없지만 내가 만족했던 강의를 자세하게 설명하여 더 많은 사람이 좋은 강의를 접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또한, 학생들 성격에 따라 답이 딱 떨어지는 수업을 선호할 수도 있고 성적을 더 잘 주는 수업을 원할 수도 있다. 인생에 있어 학점은 취업에 필요한 숫자일 뿐이지만, 대학을 다니는 동안 느낄 수 있는 감정, 사고하는 방식은 이 시기만의 값비싼 기회라고 생각한다.

좋은 강의란 이러한 종합적인 사고의 힘을 길러주는 역할이 아닐까. 이 수업을 들으면 강의명이 ‘현대 사회의 부족들’인 만큼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부족들을 파악하며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다양성을 이해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강의의 좋은 점에 대해 긴 글을 쓰기란 기본적으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강의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 강의 속에서 느낀 것이 많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글을 쓸 수 있는 좋은 강의를 제공해 주신 함세정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

덕성인이 추천하는 좋은 강의 에세이 담당교수 소감

함세정(문화인류학전공)

현대사회의 부족들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은 분명 연결되어 있지만, 각자의 고유한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업에 최선을 다해 임하지만, 저와 학생 여러분은 다른 상황과 맥락을 살고 있기에 제가 생각한대로 수업이 이루어지거나 평가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또 학생에게는 수업을 각자의 방식으로 이해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기연 학생의 글이 더 놀라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와 격려를 받는 것은 사람을 참 기쁘게 하네요.

〈현대사회의 부족들〉은 팬덤, 훈족, 소확행족 등 근래에 등장한 독특한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공유한 집단들을 통하여 현대사회의 문화변동을 이해하는 교양 수업입니다. 낯선 문화 집단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당대 청년들이 공유한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수업에서는 현대 사회의 문화변동이라는 큰 이야기를 학생 개인의 작은 이야기와 연결하고, 익숙한 사회 현상의 이면을 새롭게 보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 지식 축적을 넘어선 비판적 사고력 함양과 세계와 자신에 대한 이해 증진이라는 교양교육의 목표와도 마주 닿아있습니다.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는 과정은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함께 배우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나 혼자만 혼란스럽고 괴로운게 아니라는 것만 알아도, 좀 더 탐구할 힘이 생깁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서로 알아갈 기회를 주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사실문화와 사회를 분석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대화와 토론을 요청함



니다. 자기중심적 사고를 넘어 다양한 입장에서 자신의 세계를 성찰하고 재편하는 과정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상대를 특정 개념이나 이념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나는 것은 배움을 좀 덜 불안하게 하고, 좀 더 인간적으로 만듭니다. 제 수업에 일상 질문과 답답이 종종 등장하는 나름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수업이 좋았다면, 여러분의 동료 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 학기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재난 상황 때문에 학생 여러분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수업에서 목표한 바를 달성하는 것에도, 여러분을 직접 만나는 재미 면에서도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방’ 수업이라는 또 다른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던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한 번도 대면한적 없음에도, 이렇게 제가 진행한 수업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준 학생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역시 하나의 희망적 신호로 다가옵니다. 현대사회의 부족들 수업을 듣느라 고생한 학생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부러 시간을 내서 글을 써준 기연 학생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범죄 및 비행 심리학 수강 후기 및 강의 추천

손지은(심리학과)

배 추천강의명: 범죄 및 비행 심리학

배 담당교수: 오영희

I. 서론

코로나19로 인해 정정기간에 수업을 참관한 후 자신에게 맞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다. 수강생들의 경험은 강의 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에 더불어 강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줄 것이다. 현재 학교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서 짧은 강의평가를 확인할 수 있으나 분량이 짧기 때문에 내용이 다소 단편적인 경향이 있고 에브리타임을 사용하지 않는 이들은 이러한 정보를 접하기조차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좋은 강의 에세이 공모전을 통해 학우들이 좋은 강의를 수강했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이후 강의를 수강할 학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인은 2020년 1학기에 수강한 ‘범죄 및 비행 심리학’을 소개하고자 한다. 7학기 동안 수많은 좋은 강의를 경험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뜻깊었던 강의였고, 범죄 심리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 에세이를 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목적을 가지고 에세이를 작성하게 되었다.

II. 본론

(1) 수업내용



‘범죄 및 비행 심리학’에서는 크게 범죄행동의 원인, 종류, 예방 및 치료와 같은 내용을 다루는 범죄와 비행행동의 심리학과 범죄수사와 피해자, 형사책임능력 판단과 같은 중요한 법심리학 영역에 대해 배운다. 제 1강에서는 범죄행동과 비행행동의 정의, 소년사법제도의 필요성, 범죄행동이 성립 조건, 관련 영역과 역사에 대해 배운다. 범죄 및 비행행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한 학기 수강할 내용을 알려주어 강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1강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번 학기는 코로나19로 인해 정신병질(psychopathy)부터 학습했지만 내용의 이해에 어려운 점은 없었다. 특히 강의에서 다룬 청소년 비행에 대한 내용은 청소년 범죄와 비행에 대한 사고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촉법소년은 만 10-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법규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으나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이들을 말한다(이수정, 2018). 최근 발생한 렌터카 사건을 비롯해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은 촉법소년과 범소소년에 해당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인과 동등한 수준의 처벌을 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의를 듣기 전에는 다수의 시민들과 같이 소년법을 개정하고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여 강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범죄를 근절시켜야 한 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강의를 듣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경우 그들은 소년 교도소에서 지내며 다른 범죄를 학습하고 낙인을 받게 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범죄 연구 팀 프로젝트에서 한 조가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처벌을 강화한다 해서 재범률이 낮아진 해외 사례도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강의를 듣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청소년들도 범죄를 저지르니 성인과 같이 처벌을 해야 한다는 한 가지 관점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강의를 통해 정확한 정보 및 다양한 시각을 함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업을 통해 학습할 수 있던 다양한 내용 중 청소년 비행이 본인에게 큰 깨달음을 준 내용이었다고 생각한다.

정신병질에 대해 배우며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사이코패스(psychopath)’가 무엇인

지와 재범예측도구, 그리고 재범 예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정신장애와 범죄와의 관계에 대해 배우면서 정신장애와 범죄는 대체로 무관함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실제 일반인보다 정신 장애인들의 범죄율이 더 낮고, 정신병 진단에 폭력성이 증상 중 하나로 포함될 수 있으며 정신 장애인들이 복용하는 약물이 폭력성을 유발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사람들이 오해를 가지게 된 이유도 자세히 알 수 있었다(이수정, 2018). 또한 범행당시 정신이상이어서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범행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정신장애 항변이 어떻게 쓰이고 있고, 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게 되면서 그동안 다양한 정신장애로 인한 범죄, 특히 조현병 범죄자들이 감형 받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부정적 생각을 반성하게 되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감형을 결정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면서 정신장애 항변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방향으로 사고를 전환할 수 있던 계기가 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처벌에 중점을 둔 응보적 사법보다 관계의 개선에 초점을 둔 회복적 사법으로 나아가야 함을 배우면서 응보적 사법 절차에서 피해자 소외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한 처벌을 내려 재범을 예방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지니고 있었는데, 강의를 통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응보적 사법의 문제점을 비롯해 회복적 사법을 추구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과 범죄자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어 재범율을 낮출 수 있고, 사법절차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할 수 있었다. 인터넷 매체를 통한 정보만을 습득할 때는 다수의 의견에 순응하는 경향이 컸는데,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강의를 통해 학습하게 되니 보다 비판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

(2)수업 방법

강의 진행 방법과 자료준비: 수업은 1시간 15분 이내의 강의 녹화 영상 통해 진행되었



다. 강의와 자료는 수업 전 학교 포탈 자료실에 올라왔다. 자료실에 게재되는 유인물에 더불어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님이 집필하신 ‘최신 범죄심리학’이라는 교재가 필수로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해당 교재로 과제를 해야 하며, 수업 시간에도 교재가 사용된다. 이론 강의의 진도가 나갔다면 이후부터는 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팀 프로젝트는 줌(zoom) 실시간 강의를 통해 진행하니 이론 강의가 녹화 영상으로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강의시간은 비워두어야 한다.

과제 부여: 강의 초반에 영화를 시청하고 감상문을 제출하는 과제가 있는데, 교수님께서 영화를 보며 생각해봐야 할 점을 제시해주시기 때문에 어려운 과제는 아니다. 지루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내용을 다루지는 않아 흥미롭게 시청할 수 있을 것이다. 한 학기 동안 배우게 될 내용, 특히 청소년 비행과 미국의 재판과정에 대해 자세히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 시청한다면 향후 수업의 이해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과제는 교재 요약과제와 범죄 연구 팀 프로젝트 과제가 있다. 요약과제는 다음 강의에 해당하는 교재 내용을 미리 요약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예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의를 더욱 수월하게 들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요약의 형식은 자유롭고 분량도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인은 보통 5장 내외로 제출했다. 또한 2번 정도 번역과제가 나가는데, 아주 간단한 형식으로 1시간도 걸리지 않는다. 요약과제는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제출하지 않고 1장, 2장, 4장, 5장, 6장, 7장, 10장을 요약했다.

범죄 연구 팀 프로젝트는 범죄 및 비행심리학 강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해당 강의를 수강하고자하는 이들은 팀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자신이 있는지부터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조별로 연구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고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팀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 방법과 협동성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힘든 점을 감안하더라도 강의를 수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이들이 듣는다면 많은 정보

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절차는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피드백을 받은 후 이를 바탕으로 수정을 거치고 연구를 진행해 나가면 된다. 최종 발표를 한 후 기말고사를 보는 날 최종 보고서를 일괄 제출한다. 주제선정부터 조원들의 적극적인 의견공유와 협력이 필요하다.

평가 및 피드백: 범죄 및 비행심리학 강의는 조별 과제에서의 피드백 과정이 돋보였다. 주제 선정 후 이에 대해 1차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피드백을 바탕으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서론에 연구목적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본문에는 연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요약해 정리하면 된다.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후에는 화상 강의를 통해 학우들에게 연구계획을 발표하고 다시 피드백을 듣는다. 우리 조는 ‘사이버불링에 대한 연구-악성댓글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를 발표했고, 주제를 구체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설문지 문항을 기존 연구에서 가져오기보다 창의적으로 구상해야 한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이후 보다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고 싶을 경우 교수님과의 면담시간을 정해 화상으로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이 과정을 통해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연구 방법 등 연구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고, 연구 주제 또한 ‘대학교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악성댓글에 대한 연구-덕성여자대학교 에브리타임을 중심으로’라고 구체화시킬 수 있었다. 이후 최종 발표는 3조씩 나누어 진행하는데, 평가는 최종보고서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았다. 첫째 주 발표인 조들은 빨리 피드백을 받고 보고서를 완성시킬 수 있고 마지막 발표 조들은 다른 조들의 발표와 피드백을 보고 자신들의 연구를 수정해 나갈 수 있으므로 모두에게 이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중간고사 없이 3일 간 기말고사를 진행했다. 또한 과제를 기간 외에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한을 명심해두어야만 한다. 기말고사를 보기 전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학교 포탈 공지사항에 올려 주셨다. 출석점수는 10점으로 2번 결석 시 1점을 감점하고, 10점의 과제점수는 한 번 미제출 시 1점을 감점한다. 기말고사 점수는 50점이며, 팀 프로젝트 점수는 30점으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학점을 산출한다.

(3) 수업 참여

현재까지 들은 모든 강의를 고려하더라도 범죄 및 비행심리학을 수강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고 자부할 수 있다. 우선, 매주 주어지는 요약과제를 5장 내외의 분량으로 제 시간에 제출했다. 요약과제와 번역과제를 통해 다음 강의를 예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루지 않고 최대한 꼼꼼히 내용을 숙지하려 노력했다. 모든 강의를 제 시간에 들었으며, 강의 내용에 도움이 되는 동영상도 모두 시청했다. 특히 팀 프로젝트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연구 주제 선정에서 악성댓글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으며, 선행 연구 조사와 설문지 문항 구성, 보고서의 서론 및 본문의 설문 부분, 결론 작성에 더불어 나머지 보고서 작성과 발표 피피티 제작도 함께 도왔다. 서론과 설문 부분도 다른 조원과 함께 진행했기에 서로 도와가며 협동하는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조별과제의 모든 부분은 조원들의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했기에 다른 조원들의 결과물에 적극적으로 피드백 했고, 피드백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보다 나은 방향으로 수정을 거쳤다. 면담을 진행할 때에는 2명씩 조를 이루어 면담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했다. 또한 면담과 발표 전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정리하면서 내용을 다시 한 번 숙지했고, 청자에게 적절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질문이 들어와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질문에 걸 맞는 답변을 할 수 있었으며, 완성도 있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궁금했던 사안들도 교수님께 여쭙어 볼 수 있었다. 본인의 파트만 담당하고 다른 부분은 다른 조원에게 맡길 수 있었지만 연구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제출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했고, 그로 인해 협력의 의미와 효과적인 상호작용 방법을 학습할 수 있었다. 또한 주도성과 자신을 믿는 힘도 학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4) 동기와 변화

수업을 통해 적당한 정도의 상호의존성을 배울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으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어 단체 채팅 및 화상회의를 통해 연구를 진행해 나가다보니 서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느껴졌다. 연구계획서 작성과 연구 진행, 최종 보고서까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수였고,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분히 소화해야 한다. 조원들을 믿고 동시에 조원들의 기대에 충족하기 위해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본인의 역량이 부족해서 강의 수강을 망설일 수 있겠지만 교수님과 다른 조원들이 도와주고 과제를 하며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기만 한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스스로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자신의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닌 과제의 전체부분을 담당하면서 내면에 숨겨져 있던 책임감과 주도성, 용기 및 독창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타인에게 의존만 해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향후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독립심을 향상시켜야 함을 깨달았으며, 학업에 대한 동기도 향상되었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연구를 직접 경험하면서 범죄 심리와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던 계기가 되었다. 본 강의를 듣고 그동안 회피해오던 진로 문제를 다시 한 번 용기를 가지고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 연구보고서 작성 방법과 연구 진행 방법을 배울 수 있었고, 이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던 범죄심리학을 배우는 것에 더불어 학문의 현실적인 면도 살필 수 있었다. 강의에 사용되는 카페 자료실에 게재된 범죄 심리사 교육과정 안내문과 수업시간에 진행한 범죄피해자 전문요원 특강과 상담교사의 특강을 통해 진로를 구체화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수사심리학을 수강하며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의 영상을 시청하며 꿈을 크고 넓게 가질 수 있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자격증 시험도 취소되고 도서관도 휴관을 하며 진로와 학업에 대한 의지가 꺾여 상당히 무기력한 상태였는데 수업을 들으며 그러한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수업이 고되고 힘들긴 했지만 그 과정만 거치면 값진 경험을 얻을 수 있기에 모두에게 범죄 및 비행 심리학이라는 강의를 추천하고 싶다.

수업을 통해 변화했음을 느낀 것은 수업 초기에 시청한 영화를 종강 후 다시 시청했을

때였다. 범죄심리학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재범을 낮추기 위한 최선의 방법도 아니며 청소년들을 사회에 적응시키고 낙인을 줄이는 과정이 필수적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단점과 강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고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범죄를 줄이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생각해볼 수 있었다. 범죄와 관련된 영역으로 진로를 정하지 않더라도 이번 학기에 범죄 및 비행심리학 과목을 수강한 것은 인생에 있어 커다란 자양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III. 결론

범죄 및 비행심리학 과목이 고된 강의일 수도 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앞으로 강의를 어떻게 진행될지는 확신할 수 없으나 현재와 같이 진행된다면 강의와 요약과제, 팀 프로젝트를 모두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지칠 수도 있다. 하지만 고됨보다 강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가 훨씬 큰 수업이라 자부한다. 4학년 강의이기 때문에 4학년 학우들이 강의를 수강하는 것을 주로 고민할 텐데, 본 강의를 듣고 졸업한다면 사회에 나가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강의 수강을 추천한다. 또한 4학년이 아닌 시기에 듣더라도 보고서 작성 및 조별과제 수행과 학업 방법을 배울 수 있고, 이를 통해 이후 다른 강의를 들을 때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범죄 및 비행심리학은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강생들에게 값진 경험을 제공해 주었기에 좋은 강의였다고 말하고 싶고 기회가 되는 이들이 수강해 좋은 경험을 얻기를 바란다.

IV. 참고문헌

이수정. (2018). 최신 범죄심리학. 학지사.

덕성인이 추천하는 좋은 강의 에세이 담당교수 소감

오영희(범죄 및 비행심리학 담당 교수)

‘학생들의 성장을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는 즐거운 강의’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스스로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자신의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닌 과제의 전체 부분을 담당하면서 내면에 숨겨져 있던 책임감과 주도성, 용기 및 독창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타인에게 의존만 해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향후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독립심을 향상시켜야 함을 깨달았으며, 학업에 대한 동기도 향상되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연구를 직접 경험하면서 범죄 심리와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던 계기가 되었다. 본 강의를 듣고 그동안 회피해오던 진로 문제를 다시 한 번 용기를 가지고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 (손지은, 2020)

좋은 강의 에세이 공모전에 제출한 손지은 학생의 글을 읽으면서 고마움과 보람을 동시에 느낍니다. 먼저 범죄/비행심리학 강의를 듣느라 힘들었을 텐데도 강의 후에 매우 긍정 들어서 에세이를 작성해준 손지은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이 에세이는 학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다음 학기부터는 ‘범죄/비행심리학 강의에 대한 학생 매뉴얼’로 학생들에게 소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덧붙여서 학생들이 내 강의를 잘 들었다는 증거를 에세이에서 자세히 제시해주어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내가 범죄/비행심리학 강의에서 초점을 두는 것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팀 프로젝트입니다. 이 팀 프로젝트에서는 학생

들이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한 다음에 범죄/비행심리학과 관련된 주제를 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여 보고서를 씁니다. 처음에 주제를 정하고, 연구계획서를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성장을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는 것은 내게 큰 즐거움입니다. 바로 위에서 인용한 손지은의 글은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물론 10개나 되는 팀에게 자세한 피드백을 수시로 해줘야 하는 것이 많이 힘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어설픈(?) 연구주제를 정하였다가 점점 더 연구다운 연구를 해 나가는 학생들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은 매우 즐겁습니다. 그리고 기대보다 훨씬 더 큰 역량을 발휘한 학생들의 최종 연구 결과물을 보면 아주 대견스럽기까지 합니다.

더 나아가서 팀 프로젝트는 내게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 줍니다. 이번에 손지은 조가 한 연구는 ‘대학교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악성 댓글에 대한 연구-덕성여자대학교 에브리타임을 중심으로’라는 매우 흥미롭고 유익한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악성 댓글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문득 우리 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이 이 연구보고서를 읽고 우리 학교만의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번 범죄/비행심리학 강의 에세이를 잘 써 줘서 선생님의 보람을 느끼게 해준 손지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아울러 다음 학기에는 어떤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할지를 지켜보는 생생한 즐거움을 다시 경험하게 되기를 고대해 봅니다.

2020학년도 1학기

덕성인이 추천하는 좋은강의 에세이 수상작품집

■ 발 행: 덕성여자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 주소 : (01369)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 144길 33
- 전화 : 02-901-8817
- 팩스 : 02-901-8487
- 전자우편 : cti@duksung.ac.kr

■ 발 행 일: 2020년 8월 11일

■ 편집·인쇄: 킨코스코리아(주)
